

광우병이 EU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

☒ 소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질환인 소해면상뇌증(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:BSE), 소위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. 지금까지 16만건 이상의 사례가 영국에서 확인되었다. 여타 국가들에서 확인된 것은 6백건 이하인데, 이는 거의 모두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오염된 사료 또는 감염된 동물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.

☒ 1988년 이후 영국정부는 광우병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. 그 기본적인 목적은 공중위생의 보호, 광우병의 퇴치, 소비자신뢰의 회복 그리고 여타 동물로의 전염방지 등이었다. 그 결과, 광우병은 1992년 영국에서 3만6천건 이상이 보고되는 등 극성을 부렸으나, 1996년에는 약 1천5백건 정도로 현재 감소하고 있다. 광우병은 영국에서 2001년까지 박멸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, 이에 관한 입장들은 여전히 다르다.

☒ 가장 최근의 광우병 파동은 광우병 감염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(Creutzfeldt-Jacob Disease: 사람에

게 기억력 감퇴, 치매 및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뇌 신경계통의 질환으로서 감염후 발병시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며, 발병될 경우 뇌가 위축되어 구멍이 생기고 발병후 6개월~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)이라는 새로운 변형체의 발견사실을 1996년 3월 20일 영국의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(SEAC:Spongiform Encephalopathy Advisory Committee)측이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. 이는 결국 영국산 쇠고기 및 관련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금지 조치, 수많은 국가에서 성우(成牛) 및 송아지 도살조치 도입, EU의 쇠고기개입수매 그리고 쇠고기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낳게 했다.

☒ 광우병 문제에 대한 EU측의 광범위한 조사는 없었지만, 광우병 파동으로 야기된 경제적 총손실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.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1996/97년도 EU의 예산지출을 보면 다소 정확한 추정을 내릴 수 있다. 이 예산지출액중 상당부분은 EU 집행위원회, 영국, 네덜란드, 프랑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조치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. EU 집행위원회의 1996년도 예산

지출액은 약 12억 ECU(European Currency Unit:유럽통화단위)이다. 여기에다가 위 3개국의 예산지출액을 합치면 40억 ECU에 육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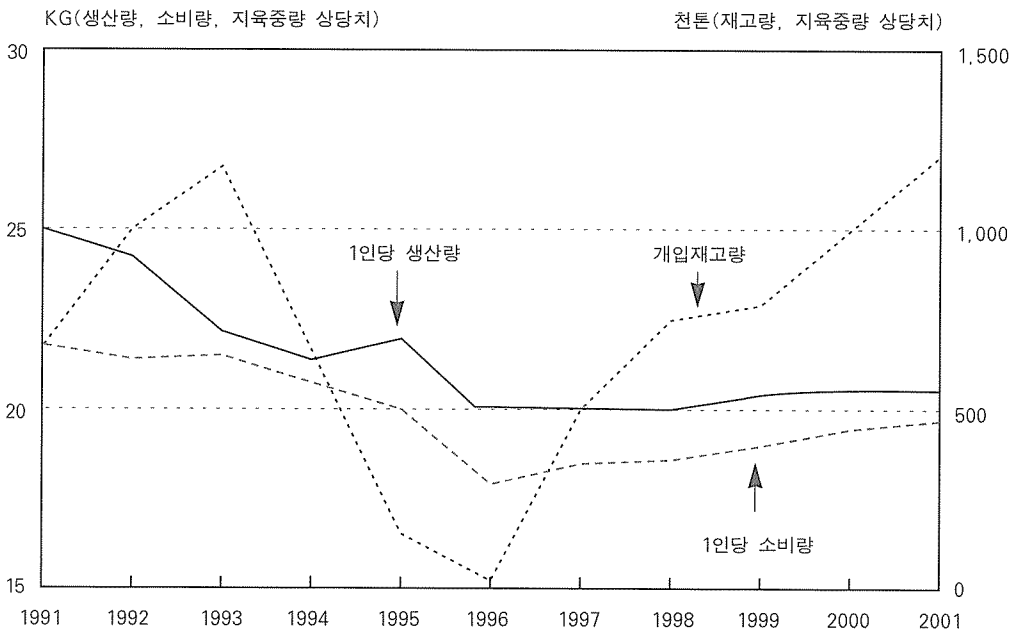
☒ 영국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(SEAC)의 발표는 소비자신뢰도 추락, EU 쇠고기 시장 공급과잉현상 재현,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의 가격폭락을 초래했다.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, EU집행위원회는 쇠고기 생산을 줄이고 향후 몇년 동안에 걸쳐 쇠고기시장을 재균형시키기 위해 수많은 단기적 조치를 실시했다. 이 중 가장 중요한 조치들은 강제적인 송아지도살조치, 어린 소의 조기판매조치, 개입수매조건의 완화, 대다수 EU 회원국들 측의 수송아지장려금의 하한가격 인하, 직접소득지원 5억 ECU 증액 등이 있다.

☒ 광우병파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

기는 어렵다.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정도나 회복될 것인가도 불확실하다. 광우병파동은 또한 위생, 식품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.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, 이는 식품수요 그리고 식품생산기법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다.

☒ 광우병파동의 영향은 여타 상품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. 광우병파동의 결과, EU의 소맥, 잡곡, 탈지분유의 수출가능물량은 광우병 파동 이전시기와 비교할 때 대폭적으로 증가할 지도 모른다. 그러한 반면에, EU에 대한 양고기 수출국들의 전망은 양고기쪽에서의 소비자 수요이동과 그에 따른 양고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개선되었다.

● 광우병으로 인한 EU의 쇠고기 생산, 소비, 재고의 증기변화추세



자료:OECD사무국